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479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25일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광주·전남·북 새 활로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

광주일보 73주년 제안

〈1〉 호남 경제동맹

초광역 교통망으로 생활권 공유
수도권 등과 경쟁·소멸 막아야

21대 6·3장미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 정당과 대권주자들의 공약에 지역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공약으로 명시돼야 명실상부한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어서다. 광주일보는 창간 73주년을 맞아 지역민의 여망을 담은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공약채택의 당위성을 조명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전북의 새활로를 열어줄 대안으로 '메가시티'(Mega-City)가 조명받고 있다.

산업기반이 약하고 도시 경쟁력이 약한 호남이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도시를 뜻하나, 최근 광주·전남·전북이 추진하는 메가시티는 권역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경제권을 공유, 성장축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도시 모델이다.

전문가들도 기반시설, 편의시설, 의료복지시설 등에서 압도적인 수도권과 영남권에 몰리고 있는 연구개발기관, 민간기업 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호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꼽고 있다.

2000년도 초부터 자치단체에서 메가시티 논의는 시작됐지만, 호남권은 준비가 한참 늦었다.

지난 2004년 호남권 3개 광역지자체는 처음으로 정책협의회를 가질 정도로 타 지역에 앞섰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2017년까지 11번이나 모임을 가졌는데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책협의회를 개최한지 7년만인 지난해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주도권을 타 지역에 내줄 경우 지역 소멸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반면,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인구 800만의 동남권을 제2의 국가 성장축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본궤도에 올렸다.

이들 지역은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울산연구원, 부산연구원,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도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광역교통협의회'를 통해 광역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메가시티 조성을 계획 중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통한 2022년 (가칭)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통해 글로별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불균형 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2026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를 승인받았다.

타 자치단체 보다 늦은 출발을 하고 있는 호남권 메가시티는 정부의 전폭 지원이 절실하다.

호남권 메가시티는 초광역 교통망 확충 등 대형 현안이어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없이는 결실을 맺을 수 없는 현안이다.

더구나 수도권과 격차는 더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지역내총생산) 격차는 2010년 1.2%p에서 2021년 기준 5.6%p로 증가했고 점차 더 벌어지고 있다.

호남권 청년인구 이탈, 초고령화는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호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경제동맹 공동선언문에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갈절함이 담겨 있다.

경제동맹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은 발전전략을 넘어 생존전략으로, 수도권 1극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면서 "지자체간 경계를 넘어 수도권과 경쟁·발전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생활권을 만들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전남·전북이 대한민국 초광역협력의 성공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본사 인사

▲강명렬 : 전무이사(경영지원담당)
▲유임현 : 전무이사(기획관리담당)
▲최권일 : 이사·편집국장

〈4월 22일자〉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가난한 이들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936~2025〉

2013년 즉위 이후 포용·개혁 펼쳐…2014년 한국 방문 각별한 인연

'가난한 이들의 성자' 교황 프란치스코가 21일(현지 시간) 선종(善終)했다. 향년 89세.

교황청은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침 7시35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교황은 올해 2월 폐렴으로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에 입원했지만 병세가 호전돼 교황청으로 돌아와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전날(20일) 부활절 대축일에는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최초의 남미 출신으로 예수회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 즉위 이후 포용과 개혁의 목소리를 내왔다. 사회적 소수자를 포용하고 교계의 권위적 관행을 벗어나기 위한 개혁적 주장을 펼쳐온 것이다.

그의 메시지는 엄격한 교리로 인해 좁아진 교회 문호를 많은 신자들에게 열어줬다는 평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가톨릭 내부의 보수파·개혁파 간 균열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상존한다.

교황은 지난 2023년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전환자도 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등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했다. 또한 그는 난민 대량 유입 사태로 유럽 내 반난민 움직임이 일자 관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각국이 이민자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EU(유럽연합)가 책임성을 갖고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했다.

교황은 지난 2014년 8월 우리나라를 방문해, 광화문광장에서 34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세월호 참사 유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 씨를 만나 위로하기도 했다. 4박 5일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유족을 네 차례 만나는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또한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명동성당 미사를 집전할 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7명을 초대한 바 있다.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나비 배지'를 건네자 제의에 직접 달기도 했다.

즉위 이래 교황은 정치, 종교 분쟁으로 대립이 격화된 지구촌 곳곳을 다니며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반세기 넘게 적대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쿠바 간 국교 정상화에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는 공식 석상에서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할 만큼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알립니다

다음 포털에서 광주일보 뉴스 구독하세요

네이버 스탠드 이어 다음 뉴스 공급

광주·전남지역 대표 언론사인 광주일보가 네이버(NAVER) 포털 뉴스스탠드를 통한 뉴스 공급에 이어 다음(Daum·카카오) 포털에서도 광주·전남지역 뉴스를 독자들에게 공급합니다.

올해로 창간 73년을 맞아 디지털·영상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는 광주일보가 이제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를 통해 더욱 더 빠른 뉴스로 독자들에게 다가가게 됐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신규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를 진행했고, 이 결과 광주일보 등 전국의 지방 49개 언론사가 신규 입점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일보는 PC와 모바일을 이용, 다음 뉴스 페이지를 통해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빠르게, 심층 기획기사 등을 폭넓게 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 구독은 PC와 모바일에서 '광주일보'를 검색한 뒤 다음 채널을 클릭해 광주일보 메인 화면이 뜨면 우측의 구독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또한, 네이버 뉴스스탠드는 PC를 통해 네이버 메인 홈페이지에서 뉴스스탠드를 클릭한 뒤 광주일보를 검색, 구독 신청을 하면 간편하게 광주일보 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光州日報社

OK! Now Jeonnam
전라남도

2025년 1월부터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1세(12개월)부터 18세까지 월 20만원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1세가 되는 생일달에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정부24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내용
'24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생후 12개월이 된 아동	출생아동과 부모 모두가 함께 전남에 거주	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울타리 전라남도